



벤처의 활기찬 여름!

NHN기부포털 '해피빈' 새단장



NHN(대표 최취영, happybean.naver.com)과 아름다운재단이 공동 운영하는 온라인 기부포털 '해피빈' 이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네이버 서비스와 기부 활동의 연계를 강화해 이용자들은 지식N, 메일, 블로그 등 네이버 서비스 곳곳에서 해피빈에 기부 할 수 있는 기부 수단인 '콩' (콩 1개=100원을 획득하거나, 별도로 '콩' 을 충전해 원하는 단체에 원하는 금액 만큼 손쉽게 기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기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이 후원하는 '콩' 에 해당 기업 명칭을 표시하고 기부 내용을 보여주는 별도 페이지를 마련하는 등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NHN은 서비스 개편을 기념해 오버추어, KT, 삼성그룹과 공동으로 해당 기업들이 지원하는 '콩' 을 서비스 내에 제공해, 이용자들이 이를 클릭하고 공익 단체에 기부하는 캠페인을 8월 4일까지(삼성그룹은 8월 16일까지) 진행한다.

PSK, 동탄 반도체공장 본격 가동



반도에 장비업체인 PSK(대표 박경수 www.psk-inc.com)가 경기 화성시 동탄면 석우리에 연건평 1만 1570㎡ 규모의 새 공장을 건설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생산 시설과 연구소 등이 들어선 공장은 작년 9월 착공돼 최근 완공됐으며 모두 178억 원의 건설비가 투입됐다.

이번 공장 가동으로 PSK는 연간 반도체 장비 등 350대, 디스플레이 장비 6대 등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넥슨, '차이나조이' 서 갈채



'카트라이더' 로 동시접속자 80만 명을 이루는 등 중국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넥슨(대표 권준모 www.nexon.com)은 중국 최대 게임쇼인 차이나조이 2007에 신작 '빅샷' 과 '테일즈위버' 등을

연이어 공개하면서 중국 현지 관람객들과 매체의 관심을 받았다. 차이나조이에 참가한 세기천성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낸 '빅샷' 과 '테일즈위버' 의 반응은 열광 그 자체. 넥슨의 게임들이 중국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건 바로 확실한 로컬라이징과 차별화된 프로모션, 협력 관계 이상인 파트너사와의 관계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조건을 보고 여러 업체에 자사의 게임들을 퍼블리싱하기 마련이지만 넥슨은 현재 세기천성과 산다 등 소수의 퍼블리셔를 통해 넥슨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선택은 세기천성과 산다의 파트너십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결과를 이끌어 냈으며, 단순히 업체와 업체 입장이 아닌 가족과 같은 입장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

니트젠, 지문인식기술 전자여권에 실린다



지문인식 전문기업 니트젠(대표 배영훈, www.nitgen.com)의 지문인식기술이 대한민국 전자여권(e-Passport)에 탑재된다.

니트젠은 11일 정부의 '전자여권 도입을 위한 신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서 자사 지문인식 기술을 적용한 LG CNS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니트젠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유럽의 전자여권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VENTURE FOCUS

“티켓링크 ‘확’ 달라졌다” 홈페이지 새단장



티켓링크(대표 우성화, www.ticketlink.co.kr) 홈페이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리뉴얼 오픈했다. 이번에 새로 오픈한 티켓링크 홈페이지는 국내 최초로 공연, 전시, 영화, 스포츠, 전시, 축제 등 모든 분야의 티켓예매를 한 화면에서 진행하는

차세대 웹 어플리케이션 RIA(Rich Internet Application)를 도입해, 예매 방법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분야별 티켓예매 및 공연장, 좌석별 예매랭킹 ▲공연, 콘서트, 영화, 전시, 축제, 스포츠 정보 ▲사이버포인트 링 ▲고객들에게 재미있는 놀거리를 제공하는 ‘놀이터’ 등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로 고객 참여성을 높였다.

특히, 공연랭킹 서비스는 더욱 세분화, 다양화시켜 실시간 인기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소극장공연 마니아를 위해 대학로공연 코너를 신설했다.

엔씨비네트웍스, ‘자원개발사업’



엔씨비네트웍스(대표 허대영, www.ncbnet.co.kr)는 서울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제2의 도약을 맞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근 넥스트인스트루먼트에서 엔씨비네트웍스로 사명을 바꾼 것도 새로운 사업 진출에 따른 기업 이미지 변화를 위해서다.

엔씨비네트웍스는 미국 내 유전관련 자원개발사인 코람자원 지분 100%를 인수하며 자원개발사업에 뛰어 들었다. 코람자원은 권육상 대표가 지난 2001년 설립한 유전개발 전문회사로 미국 텍사스에서 유전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 미국 텍사스주의 와이즈 카운티 내 2개 광구를 매입해 가스·석유 생산 정을 개발,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기존 사업 부문도 강화에 나섰는데 올 초 원테크의 퍼니스 사업부문을 인수하며 반도체 검사, 측정장비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크루트·생산성본부, 대학생 교육사업 MOU 체결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 www.incruit.com)는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배성기 www.kpc.or.kr)와 대학생 교육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제휴로 두 기관은 대학생 대상 교육, 취업지원 등 교육관련 사업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두 기관은 올 6월 마케팅분야의 기업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마케팅관리사 교육과정(6월28일~8월10일)을 운영 중이다. 또 서울과 수도권에서 7월 27일부터 취업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차세대 마케팅아카데미’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인크루트는 교육전문 기관과 취업전문 회사가 함께 대학생의 취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기업의 맞춤형 인재 채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유니테스트, 반도체 소자 테스트 장치 특허취득



유니테스트(대표 김중현, www.uni-test.com)는 3일 반도체 소자 테스트 장치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 이번 발명은 종래의 반도체 소자 테스트 장치에서 다양한 타이밍 생성을 위해서 사용

하던 구성을 시간 지연만으로 생성하여 반도체 소자 테스트 장치의 테스트 효율 및 반도체 소자 테스트 장치의 제조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테스트는 현재 개발 중인 메모리 테스터에 이번 특허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이닉스에 차세대반도체 검사장비 110억 원어치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제품은 메모리 반도체인 DDR나 DDR2는 물론 내년부터 본격 양산되는 DDR3, SDRAM 등을 최대 1.2Gbps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고성능 메모리 테스트 시스템으로 기가급 스피드 대역의 검사장비를 개발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비트컴퓨터, 태 수쿰빗병원과 SW수출계약



비트컴퓨터(대표 조현정, 전진욱, www.bit.co.kr)는 태국 방콕의 수쿰빗병원(원장 닥터 다윈)과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 원무관리시스템, 처방전달시스템 및 임상병리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계약규모는 495만바트(13만2천불)로, 비트컴퓨터는 이달부터 바로 업무를 착수해 4개월 이내에 솔루션이 정상가동이 되도록 지원하게 된다.

방콕내 최대 도심지역인 수쿰빗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수쿰빗병원은 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으로 랑캄행 그룹 병원이다.

비트컴퓨터의 태국 영업대표인 이근준 대표는 "수쿰빗병원은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도심 한가운데 외국인 거주지역에 위치한 고급 병원으로 외국인 대상 전문 병원을 표방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병원으로 확장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중이고 고급 병원이어서 향후 비트컴퓨터 솔루션의 이미지 구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트컴퓨터는 이미 랑캄행 계열 12개 병원 중 비파람 병원, 비파바디 병원, 랑캄행 병원, 신폻병원, 치앙마이양의 의료정보솔루션을 구축한 바 있다.

핸디소프트, 그룹 공채 진행



핸디소프트(대표 황의관, corona.handysoft.co.kr)와 계열사 핸디데이터가 '종합 IT 솔루션 및 서비스 그룹'을 표방한 이후,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위한 대규모 그룹 공채를 진행한다.

핸디소프트 그룹은 지난 4월, 연구개발과 제품 공급에 집중하는 그룹의 지주 회사인 핸디소프트와 프로젝트 수행 및 SI 서비스 등을 전담하는 핸디데이터를 출범시키며, 미국과 일본 법인을 아울러 새로운 사업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모집분야는, 국내 시장 점유율1위를 확고히 하고 있는 BPM 제품 분야의 글로벌 제품 경쟁력과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 업무 프로세스 관리) 개발, 그룹웨어와 같은 EKP(Enterprise Knowledge Portal) 분야 개발 및 프로젝트 서비스 인력 등의 개발자 직군과 그룹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위한 영업, 기획, 마케팅, 홍보, 재무 분야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각 부문별로 신입 및 경력직을 공채로 선발하며, 서류 전형과 1차 실무진 면접, 임원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하게 된다. 전체 채용 규모는 약 30~40 여 명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우수한 인력이 많이 지원할 경우 선발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

제너시스템즈, IP-PBX특허 12건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제너 시스템즈(대표 강용구, www.xener.com)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인터넷전화(VoIP) 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 회사는 VoIP 시장 확대에 따라 기존 PSTN 방식의 사설교환기(PBX) 시장이 통합 커뮤니케이션(UC)·멀티미디어 콘퍼런스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가능한 IP-PBX로 개편되고 있다는 주목, 일찌감치 관련 솔루션 및 기술 개발에 나섰다.

그 결과 현재 IP-PBX 관련 특허기술만 12건을 보유하고 있다. 매출 면에서도 IP-PBX는 제너시스템즈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2006년 회계연도(2006.4.1~2007.3.31) 정식 제품 출시와 함께 전체 매출 214억 원 가운데 16억1000만 원을 차지했으며, 올해는 전년대비 2배 이상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콤텍시스템 'TDMoIP' 첫 상용화



네트워크통합(NI) 업체인 콤텍시스템(대표 남석우 www.comtec.co.kr)은 맥내광가입자망(FTTH) 확산에 주목, 전국적으로 광대역통신망(BDN)이 구축 되면 지난 50여년간 보급돼 온 시분할 다중화(TDM) 장비를 전용회선망이 아닌 저렴한 IP망에 연결해 주는 'TDMoIP(Time Division Multiplexing over IP)'가 필수라고 보고, 국내 최초로 이 장비를 개발·상용화했다.

콤텍시스템의 이같은 판단은 적중, 올 들어 본격적으로 성과를 보고 있다. 이미 LG피워콤과 SK텔레콤 및 KTF 등의 3G 서비스를 위한 기지국 연결용으로 납품했으며, 북미지역의 3대 무선통신 사업자들과도 제품 공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시장의 요구를 빠르게 파악해 개발한 TDMoIP 장비는 전 세계적 이스라엘에 이어 두 번째로 상용화한 것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초기 시장으로 매출이 미미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VENTURE FOCUS

솔리테크, SKT와 31.6억 WiBro 중계기 공급계약



솔리테크(대표 정준 www.st.co.kr)는 SK텔레콤과 31억 6426만원 규모의 07년 3차 AFE(1단계) WiBro 중계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은 솔리테크의 최근 매출액 대비 2.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미라콤아이앤씨, 일본 엘믹웨스크과 협력



미라콤아이앤씨(대표 백원인, www.miracom.co.kr)가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엘믹웨스크과 자사 제품의 일본 시장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엘믹웨스크은 요코하미와 오사카에 본사를 두고, 나고야와 교토에 각각 지사와 R&D센터를 설립해, 실시간 운영 체제(OS)와 미들웨어, 토털인테그레이션을 반도체 장비시장에 제공해 오고 있다. 엘믹웨스크은 계약에 따라 미라콤아이앤씨의 설비데이터수집솔루션(EDAMate)을 자사 주요 리퍼런스인 장비회사 중심으로 공급하면서 제품의 현지화를 위해 미라콤아이앤씨와 공동 작업을 진행한다.

파이오링크, '보안스위치' 공급 박차



국산 애플리케이션 스위치 개발업체인 파이오링크(대표 조영철, www.pionlink.co.kr)는 최근 보안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웹 방화벽 시장에 외국 경쟁업체보다 한발 먼저 진출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파이오링크는 애플리케이션 스위치 개발과 공급을 통해 쌓은 애플리케이션 계층 분석 기술 등을 기반으로 웹 보안 스위치를 개발, 지난해 아직 초기 시장이나 다름 없던 웹 방화벽 시장에 뛰어 들었다. 그 결과 지난해 전체 매출 75억 원 가운데 7억 원을 웹 보안 스위치로 올렸다.

엠텍비전, 휴대폰용 IC 공급개수 2억개 돌파



엠텍비전(대표 이성민, www.mtekvision.com)의 휴대폰용 반도체 IC(집적회로) 칩 누적공급량이 2억 개를 돌파했다. 이는 2004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세계 카메라 및 멀티미디어폰 총 생산수량을 15억 대라고 볼 때,

그중 13%에 해당하는 수량이다. 즉, 전세계 카메라 및 멀티미디어폰 8대 중 1대에는 엠텍비전 제품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엠텍비전은 최초 1억 개 돌파에는 2년여 간의 시간이 걸렸으나, 추가 1억 개 납품에는 1년 반이 소요된 만큼 앞으로 1억 개 납품 실현기간은 지속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제일 많이 팔린 제품은 삼성전자의 벤츠폰 에 적용돼 삼성전자를 세계 휴대폰업계의 강자로 떠오르게 했던 초창기 대표제품 MV317로, 이는 5200만개 판매를 달성했다. 이외에도 4000만대 1개 제품, 2000만대 1개 제품, 그리고 1000만대 3개 제품이 있다.

휴맥스, 터키 방송국과 280억 규모 계약 체결

디지털 가전 기업 휴맥스(대표 변대규 www.humax.co.kr)가 터키 방송국에 280억 원 규모 셋톱박스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터키 최대의 위성방송사업자인 '도간TV(Dogan TV)'에 3천만 불 규모(28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위성 셋톱 박스를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단독 공급하는 것으로 휴맥스가 공급하는 셋톱 박스는 도간TV방송서비스를 지원하는 SD급 셋톱박스이며 도간TV가 직구해 하여 현지 가전유통전문점인 '베코(BEKO)' 등 유통 업체들을 통해 현지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